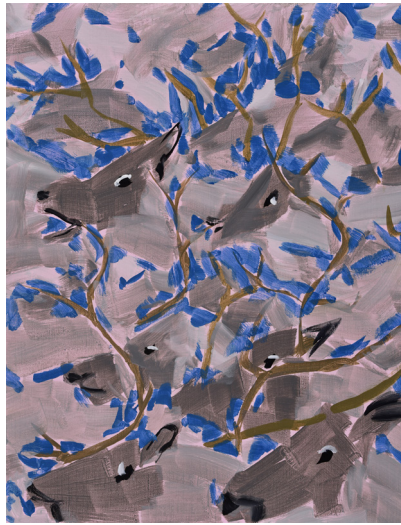


완결하지 않은 그림, 열린 세계...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

K스프릿 정유철 기자 | 2026. 8. 13. 16:44

서울 강남구 김리아갤러리가 8월 19일부터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East of Ede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회화적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한 신작 연작을 선보인다.



황도유, 에덴의 동쪽, acrylic on canvas, 53 × 40.9 cm, 2026. 김리아갤러리 제공

꽃을 그리던 황도유가 동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재가 달라진 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지된 존재를 바라보던 회화가 움직이고 관계 맺는 존재들의 세계로 나아간 것이다. 정적인 꽃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작업은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닌 동물들로 확장하며 회화의 시간성과 관계성을 더욱 깊이 탐색한다. 《에덴의 동쪽》은 이전 연작 〈서른세 송이〉에서 이어 온 회화적 탐구의 연장선에 있다. 황도유는 꽃에서 동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 '무엇을 그리는가'보다 '존재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화면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관심을 옮긴다.

이번 전시의 중심은 관계가 만들어내는 화면의 흐름이다. 화면 속 동물들은 먹이를 쫓고 몸을 숨기며 서로를 응시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화면에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머무르면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한다.

황도유는 회화를 색과 획의 흐름이 화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손이 남기는 흔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완의 감각이다. 그래서 대상을 치밀하게 재현하기보다 형상을 열어둔다. 작가가 말하는 '미완의 표현성'은 미완성의 상태가 아니다. 회화를 하나의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화면은 의도적으로 닫히지 않은 채 남겨지고, 그 여백은 붓질의 결과와 물질감, 그리고 보는 이의 감각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된다.

관람자는 화면을 오래 응시하며 동물들의 움직임과 붓질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림은 한 번에 의미를 드러내기보다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전시 제목은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차용했지만, 원작 소설의 서사를 옮기거나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소설의 서사를 재현한 것은 아니지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이 불러오는 긴장감은 이번 회화가 보여주는 세계와 맞닿아 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 화면에 놓이고, 그 사이에서 질서와 긴장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황도유 개인전 《에덴의 동쪽》은 9월 19일까지 열린다.

[출처: K스피릿]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84>